

고등학교

독서 토론과 글쓰기



지학사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과 글쓰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이를 토대로 독서 토론하며 글을 쓰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 과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목을 통해 삶과 세상을 깊이 통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방법을 올바르게 체득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안내

I 단원을 안내 단원으로 설정하여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 단원에서 습득한 내용은 앞으로의 다양한 교과 학습 맥락에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주제의 연계성과 독립성

II ~ IV 단원의 활동 과정은 동일하게 구성되며, 단원마다 주제를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원 속 소단원들의 주제는 큰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심화되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며, 소단원마다 차별화된 제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③ 학습자 주도적인 프로젝트 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워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체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독후 활동’을 통해 서·논술형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는 물론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과 함께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다 보면,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삶의 주체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지은이들의 마음을 모아

이 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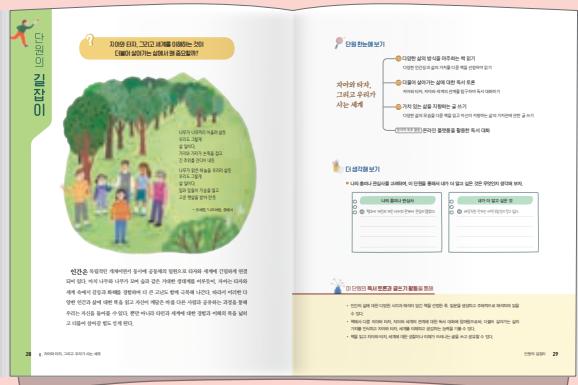


구성과 특징

대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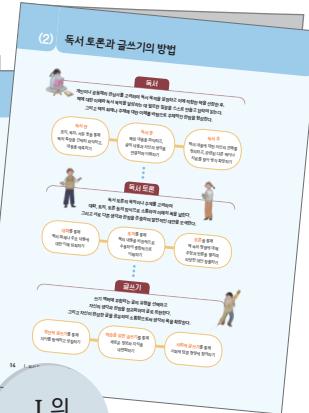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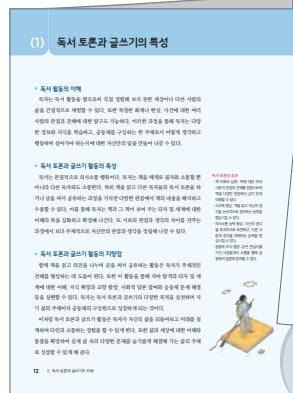
대단원 도입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을 살펴보고, 대단원을 통해 기르게 될 핵심 역량을 확인합니다.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통해 대단원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합니다. 나아가 대단원의 흐름을 살펴보고,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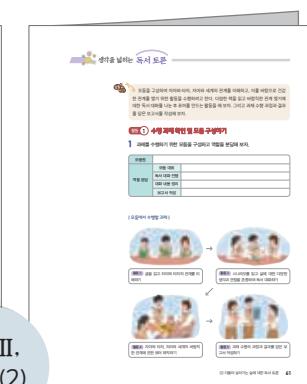
소단원 학습

이론 중심 단원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Ⅱ, Ⅲ, Ⅳ 단원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독서 토론 활동 중심 단원



• 질문으로 생각 열기

질문을 통해 소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생각해 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합니다.

• 생각을 넓히는 독서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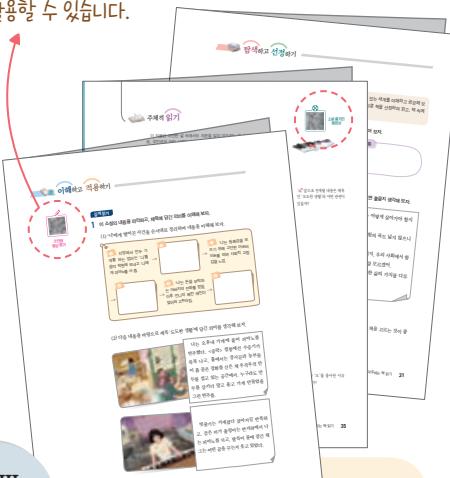
주제에 대한 글을 함께 읽은 후
대화, 토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
으로 독서 토론을 합니다.

큐알 코드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활동 중심 단원



II., III.,
IV의 (1)



탐색하고 선정하기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탐색하고 선정합니다.

주체적 읽기 선정한 책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읽습니다.

이해하고 적용하기 책의 내용을 깊고 넓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질문으로 생각 열기

질문을 통해 소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생각해 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합니다.

대단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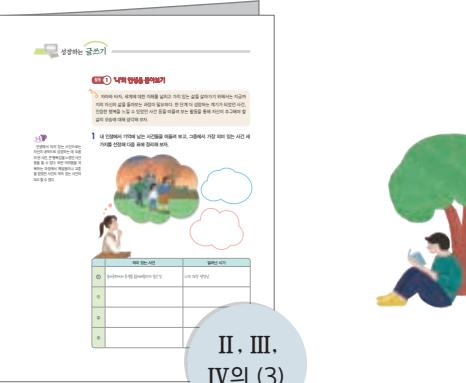


단원의 마무리 대단원의 학업 성취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과 모둠의 활동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며 이후의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글쓰기 활동 중심 단원



II., III.,
IV의 (3)



질문으로 생각 열기

질문을 통해 소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생각해 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합니다.

성장하는 글쓰기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 비평문, 정책 제안서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고 공유합니다.



창의적 독후 활동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책의 차례

I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이해

- | | |
|--------------------|----|
| (1)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특성 | 12 |
| (2)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방법 | 14 |

II

자아와 타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 | | |
|----------------------------------|----|
| (1) 다양한 삶의 방식을 마주하는 책 읽기 | 30 |
| • 도도한 생활 _ 김애란 | |
| (2)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독서 토론 | 60 |
| [가] 평상이 있는 국숫집 _ 문태준 | |
| [나] 우리 시대의 관계 맷기 _ 박병기 | |
| • 리바운드 _ 권성희, 김은희, 정향준 각본 | |
| (3)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글 쓰기 | 80 |
| [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_ 최인철 | |
| [나] 내가 잊어버린 나무들 _ 나희덕 | |
| 창의적 독후 활동 | 95 |



III

사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힘



| | |
|--|-----|
| (1)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책 읽기 | 102 |
| •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_ 장하석 | |
| (2)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독서 토론 | 126 |
| •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고의 중요성 _ 한스 로슬링 외 지음, 이창신 옮김 | |
| (3)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글 쓰기 | 144 |
| • 순간의 빛을 포착하라 _ 박우찬 | |
| 창의적 독후 활동 | 157 |

IV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

| | |
|---------------------------------------|-----|
|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 164 |
| • 공정하다는 착각 _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
|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 190 |
|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정책 _ 홍종호 | |
|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 208 |
| • 밤을 잊은 도시,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할까 _ 최성용 | |
| 창의적 독후 활동 | 225 |

부록

| | |
|-------------|-----|
| 01 제재 글 출처 | 228 |
| 02 사진 자료 출처 | 230 |
| 03 큐알 코드 목록 | 231 |

IV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

-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창의적 독후 활동 사회 현안 캠페인 제작하기



나의 삶은 공동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동안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삶이란 내 생애에 잠시만 움켜쥘 수 있는 화려한 횃불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건네주기 전에
이 횃불을 가능한 한 찬란히 타오르게 하고 싶다.

– 조지 버나드 쇼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
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 조지 버나드 쇼(1856 ~ 1950)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이다. 문명사회를 비판·풍자한 작품을 썼으며, 사회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대표작으로 「인간과 초인」, 「피그말리온」, 「성녀 조앤」 등이 있다. 노벨 문학상과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비단 저명한 학자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이 담긴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토론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책을 읽고 소통한 결과를 글로
써서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책을 매
개로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며 사회적 담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은, 우
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단원 한눈에 보기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한 현안이나 쟁점을 다룬 책을 선정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읽기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환경과 관련한 전(全) 지구적인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독서 토론하기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책을 읽고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는 글을 써서 공유하기

창의적 독후 활동 사회 현안 캠페인 제작하기



더 생각해 보기

- 나의 흥미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 단원을 통해서 내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나의 흥미나 관심사

예) 우리 공동체의 주요 쟁점에 관심이 많다.

내가 더 알고 싶은 것

예)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 단원의 독서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을 다룬 책을 선정한 후, 질문을 생성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 책에서 다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고 대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평가할 수 있다.
-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 | 학습 목표 |
- 공동체의 문제나 사회적 현안을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정한 후, 질문을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현안이나 쟁점을 분석하여 사회적 담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의의를 지닐까?



소단원 도입
동영상



| 제시된 책들이 독자에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읽는 것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어질 독서 활동

- 공동체의 문제나 사회적 현안을 고려하여 읽을 책 선정하기
- 질문을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며 읽기
- 독서 일지를 작성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내용 정리하기
-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현안이나 쟁점을 분석하고 삶에 적용하기



탐색하고 선정하기



도움
모둠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회 문제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봐야 할 주제들을 떠올린 후, 관련된 책을 선정해 본다.

1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를 주제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탐구해 보기로 하였다. 다음 대화를 통해 읽을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재: 우리 사회의 차별이나 불평등,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을 같이 읽어 볼까?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범준: 좋아.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찾아보자. 도서관 누리집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차별', '불평등', '공정', '정의' 등을 주제어로 하여 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도윤: 다양한 추천 도서 목록도 참고해서 우리의 독서 목적과 수준에 맞는 책들을 추린 후에,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해 보자.

예

| | | |
|--------|--|------------|
| 선정한 책 | 책 제목 『공정하다는 착각』 | |
| | 필자 마이클 샌델 | 출판 연도 2020 |
| 선정한 이유 |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능력에 바탕을 둔 공정을 추구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2 다음은 선정한 책을 읽기 위해 작성한 독서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에 따라 책을 읽어 보자.

예

| 회차 | 분량 | 활동 계획 | |
|------|-----------|---|--|
| | | | |
| 6/10 | 167~172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파악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생성하기 |
| 7/10 | 174쪽~180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파악하기 비판적 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생성하기 공유하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
| ⋮ | | | ⋮ |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マイ클 샌델 지음 | 함규진 옮김



읽기 전 질문하기

-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 어떤 모습의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 _____ ?



주체적 읽기

최근 ‘공정’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사회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 흔히 전제가 되고 있는 능력주의가 과연公正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능력주의가 불러오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분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公正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두 나라가 있다고 해 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국민 소득 100달러당 부유층 20퍼센트는 62달러를 가져가고, 빈곤층 20퍼센트는 1.7달러밖에 못 가져간다. 사회의 하위 50퍼센트가 버는 돈을 모두 합치면 12.5달러로, 이는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금액인 20.2달러보다 훨씬 적다. 재산의 불평등 정도는 이보다 더하다.

이렇듯 극명한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불편하다면, ‘이 두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구나’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판단에 앞서 정보를 더 찾아보자. 가령 ‘어떻게 이런 불평등한 분배가 빚어졌는가?’라든가.

‘능력주의 사회’ 대 ‘귀족제 사회’

한 사회는 귀족제 사회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고 가정하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하며,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들의 자녀도, 자녀의 자녀도 똑같은 운명이다. 그리고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른 결과 물이다.

이 정보를 알면 아마도 두 번째 사회가 첫 번째보다 낫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출생에 따라 계급을 매기는 귀족제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리라. 반면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각자 재능과 창의력으로 스스로의 조건을 낫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매우 강력한 주장이다. 물론 능력주의 아래 서도 불평등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람마다 재능과 애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적어도

능력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족제(貴族制) 특권을 가진 소수의 귀족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통치 방식.

그런 불평등은 출생 조건보다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 상황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보다 유리한 출발점(부유한 가족의 사랑과 지원,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5

자신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귀족제 사회와 능력 주의 사회 중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과연 무엇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자라날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날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싶은가 따져 보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 주의 사회야말로 귀족제 사회보다 참된 평등 사회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제쳐 두고, 두 불평등 사회의 또 다른 실태부터 살펴보자. 처음부터 내가 최상위층이 될지 최하위층이 될지 알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부자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둘 중 어느 사회에 살고 싶겠는가? 10

잊지 말자. 두 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똑같이 매우 높다. 두 나라 모두 상위 1 퍼센트에 속한다면 연간 평균 소득은 130만 달러에 이른다. 하위 20퍼센트에 속한다면 연 소득이 겨우 5,400달러일 뿐이다. 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지 모르겠다. 부자와 빈자 간의 차이가 두 사회 모두에서 극심하므로, 어느 계층에 속 할지를 미리 안다고 해서 어느 사회를 택할지 고르는 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20

그러나 소득과 재산만이 우리가 고려할 전부는 아니다. 내가 부자라고 할 때, 나는 나의 부와 특권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를 선호할 수 있다. 그러면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나 자신 또는 내 자손들이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25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부 또는 가난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상징한다는 점 말이다. 귀족제 사회에서 상류 계급 집안에 태어났다면 자신의 특권이 큰 행운임을(스스로의 성취가 아니라) 인식할 것이다. 한편 능력주의가 허용하는 최정상까지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치고 올라갔다면 자신의 성공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귀족적 특권과 달리 능력주의적 성공은 스스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가 된다면 귀족 제에서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가 더 낫다.

- 5 비슷한 이유로 능력주의 체제에서 가난하다면 맥이 빠지는 일이다. 만일 봉건 사회에서 농노로 태어났다면 힘들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낮은 지위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부담은 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죽도록 일해서 받들어야 할 지주가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에 괴로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능력주의 사회의 밑바닥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신이 겪고 있는 불우함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의 탓이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한

 만약 가난하다면 귀족제 사회가 더 낫다고 필자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노(農奴) 중세 봉건 사회에서,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

재능과 야심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회적 상승을 허용하는 사회, 하물며 그런 상승을 찬양하는 사회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혹독한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파료+

マイ클 영(1915~2002)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 운동가이다.『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능력에 따라 정해진 계급이 고착화되고 세습됨으로써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그로 인한 부정적 상황을 염려하는 가운데 만들어졌다.

5

マイ클 영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1958년에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썼다.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란 결코 이상이 아닌 디스토피아였다. 그는 영국 계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던 때 그 책을 썼는데, 바야흐로 출생 신분보다는 능력에 바탕을 둔 교육과 직업 선택이 제도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는 좋은 일이었다. 노동 계급 출신 아동이 자기 재능을 계발하여 숙명과도 같은 육체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10

그러나 영은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또한 엿보았다. 마치 자신이 2033년에 사는 역사가로서 과거를 돌이켜 보듯 쓴 저술에서, 그는 능력주의 사회의 도덕 논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살던 전후 영국에서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한 논리였다. 영은 사라져 가고 있던 계급 중심 질서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계급 체제의 임의성과 명백한 불공정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즉, 상류 계급의 자만심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노동 계급이 스스로의 종속적 상태를 개인적 실패로 보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이다.

15

그 부모의 부와 영향력으로 상류층까지 저절로 올라가는 사람은 스스로 확신에 차서 ‘나는 이 일에 최적격인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를 공개경쟁으로 따낸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자신의 하급자 가운데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럿임을 알 수 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20

상류 계급 사람은 아주 무감각해지지 않는 이상, 적어도 살면서 가끔씩은 자기 부대의 사병, 저택의 집사나 파출부, 택시나 버스 운전사, 객차나 지방 술집에서 볼 수 있는 주름살 많은 얼굴에 눈빛이 매서운 일꾼 등의 사람들이 적어도 자신 못지않은 지성, 재치,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25

디스토피아(dystopia)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

전후(戰後) 전쟁이 끝난 뒤. 특히, 제이차세계대전 후를 이른다.

비록 일부 상류 계급 사람이 자신은 그런 위치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더라도 그의 아랫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수많은 상위 계층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 누가 부모인지에 따라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시스템에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 노동 계급은 그것에 정치적으로 도전할 힘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계급 체제의 임의성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본인들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이다.

10 노동자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자, 나는 노동자야. 그런데 내가 왜 노동자지? 다른 일에는 맞지 않는가? 물론 아니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 줄 적당 한 기회가 없었다고. 의사? 양조업자? 장관?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었어. 그런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뿐이야.”

마이클 영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가 우연한 이유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확실한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승자와 패자 모두 ‘자기 인생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계급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주의 체제의 역설적인 특성을 드러내 준다. 직업과 기회가 능력에 따라 배분되더라도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불평등 구조를 능력에 따라 재구축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재구축은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굳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려 놓는다.

20 이제 능력에 따라 계급이 분류된 사람들 간의 격차는 필연적으로 더 벌어진다. 상류 계급은 더 이상 자기 의심이나 자기비판에 시달리지 않는다. 오늘날 잘나가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 단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만 여긴다. 그리고 누구도 그 성공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상류 계급에 속할 만하니까 속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할 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일류 교육으로 갈고닦을 수 있었음도 알고 있다.

‘자기 인생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영은 이렇게 관찰한다(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2033년에 살면서 ‘관찰’하듯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특유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능력주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중요성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잊은 것이다.” 또 그는 신랄한 투로 덧붙였다. “일부 능력주의자들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불쾌하게 만들 만큼 눈치가 없다.”

엘리트에 대한 분노는, 능력주의 체제하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자격지심과 합쳐진다.

5

오늘날 모든 이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을 안다. 기회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낮은 지위에 매여 있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실제로 낮은 지위라는 걸 생각하면 어떨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층민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포퓰리즘(populism) 인기를 죽
아 대중을 동원하거나 대중과 영합
하여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적 태도
나 경향.

마이클 영은 이러한 자만과 분노의 독소가 정치적 반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2034년에는 저학력 계급이 능력주의 엘리트에 맞서 포퓰리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며 자신의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끝맺는다.

10

독서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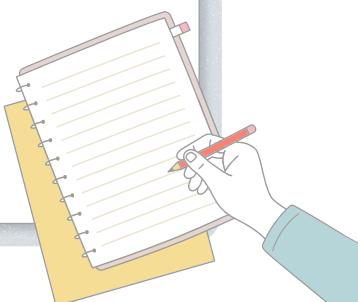
책을 읽으며 **독서 일지 쓰기**

책 제목:

필자:

읽은 날짜: 20

| | | |
|--|---|---|
| 소제목별로 내용 요약하기 | '능력주의 사회' 대 '귀족제 사회' | |
| |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 |
| 질문 만들고 답변하기 | <p>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자의 생각에 의문이 드는 부분 질문하기예 부 또는 가난이 사회적 지위와 자부심을 상징할 수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을 읽고 궁금한 내용 질문하기● 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하기 | 답 |
|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 정리하기 | | |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앞서 사례로 든 두 개의 사회는 순전히 가설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거기 묘사한 소득 불평등은 오늘날 미국에 만연한 현실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옹호는 대부분 능력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아무도 “부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니까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특권의 세습을 공공연하게 옹호하거나, 재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우리 사회는 일자리나 교육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논쟁은 기회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교육, 공직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떤가를 놓고 벌어진다.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원칙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칙의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이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대학 입학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능력 이외의 것으로 지원자들을 판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만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집단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10

적어도 원칙 수준에서 능력주의는 오늘날 패권을 쥐고 있다. 세계 전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든 시민이 그 인종, 성별, 계층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노력과 재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보통 그 이상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불평하는 것이다.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화하고, 전문적 계층은 자신들의 유리함을 자녀에게 물려줄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능력주의를 세습 귀족제로 탈바꿈시킨다.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불평들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신화이며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공허한 약속이다.

15

이 불평은 분명 옳다. 하지만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만약 능력주의의 현실적 문제들이 그 이상을 이루는 데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면? 사회적 상승에 대한 신념이 더 이상 동기

20

패권(霸權)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25

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사회적 이동성이 정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쟁적인 능력주의 체제하에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정치적 계획이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의문을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검토

- 5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정의와 관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반론은 설령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해도, 그리하여 각자의 직업과 보수가 노력과 재능에 완전히 비례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 반론은 만약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해도 과연 그것이 좋은 사회일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자만심과 불안을 자아낼 것이고 패자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 능력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은 주로 첫 번째 반론에 집중된다. 오늘날의 철학자들 대부분은 사회가 각자의 뜻에 걸맞도록 직업과 보수를 배분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철학자들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며, 따라서 철학자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 중 무엇이 옳은 가는 따져 볼 만한 문제가 된다. 비록 정의에 관한 첫 번째 반론이 철학자 집단에서는 더 친숙하다 해도, 자만심과 굴욕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 우리의 현재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더 도움이 된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저항은 공정성과 관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중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유발한 불만과 분노를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정당한가, 아니면 잘못 표출된 것인가? 만약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 25 래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가 특권층 자녀와 공평하게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해 보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이루었노라.”라고 말 할 수 있다고 해 보자.

물론 그런 사회는 이룩하기 어렵다. 차별 극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족 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리함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의 대물림만이 아니다. 그 경우라면 강력한 세금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자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치자.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쟁하는 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셈일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요, 물론이죠. 그거야말로 아메리칸드림 아닌가요? 농장 일꾼의 아이든 무일푼 이민자의 아이든 자라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열린 사회, 이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게요!” 그리고 이러한 꿈이라면 전 세계 모든 민주 사회에서도 환영받을 것이다.

사회적 이동성이 완벽한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이상적이다. 첫째, 자유에 대한 신념이 일정하게 충족된다. 우리 운명은 태어난 환경에 속박되지 않으며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둘째,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재능에 따라 뻗어 갈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리라.

그러나 그 강력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얹자고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적인 이상 사회를 이룩하려는 꿈. 다수 미국인의 공통된 소망으로 무게급 사회와 경제적 번영의 재현, 자유로운 정치 체제의 지속 따위이다.



이는 그 자체로는 능력주의의 반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옹호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에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다. 그렇다면 경쟁의 승자는 보상받을 만하다. 누군가가 다른 이보다 빨리 달렸다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이 주장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 있다. 정치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자신은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결과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능에 따른 성공은 노력의 결과일까, 행운의 결과일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그리고 행운에 따른 혜택(또는 부담)은 내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능력주의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자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을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다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다면, 나는 실망 하겠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며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 프로 농구의 한 유명 선수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그가 가진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 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처럼, 농구 선수가 아닌 프레스코^{화가}가 각광을 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미국 프로 농구 선수의 농구 능력만큼 귀한 재능을 팔씨름이란 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팔을 탁자에 내리꽂는 걸 보려고 돈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능력주의 신념은 '나의 성공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각자에게 마땅한 뜻을 준다'는 정의의 개념과 경제 체제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프레스코(fresco) 벽화를 그릴 때 쓰는 화법의 하나.

자수성가(自手成家)하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는.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빛진 것이라면(유전이든, 우연의 결과든, 신의 선물이든),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만약 우리의 재능이 ‘누군가에게 빛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 옹호자들은 노력과 수고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그들은 고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성실함에 대한 찬사를 누려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실이다. 어느 정도 까지는 말이다. 노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닦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도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큼 홀륭해질 수 있다. 가장 천부적인 운동선수라도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해야 올림픽 팀에 길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도,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기란 드문 일이다.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프로 농구의 인기 선수가 되려면 고된 훈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내가 밤낮으로 수영 연습을 한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수영 선수보다 빨리 헤엄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여겨지는 육상 금메달 수상자는 자신의 훈련 파트너(역시 천부적인 육상 선수)가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한다고 밝혔다. 노력은 다가 아니다.

능력주의 옹호자들도 물론 이를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가 누구나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장 성실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도, 가장 많이 노력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성과가 중요하다. 그들은 성공이란 재능과 노력의 혼합물이며, 두 가지는 쉽게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성공은 성공을 낳으며,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분발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노력의 효율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과 자유에 대한 도덕적인 주장을 앞세운다.

카네기 홀(Carnegie Hall)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음악 공연장.

능력주의가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조건에서는 성공에 대한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쟁이 정말 공정하다면 성공은 미덕과 연결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켜 경쟁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성공을 (스포츠에서든 인생에서든)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싶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천부적 재능과 유리한 배경의 문제는 능력주의 신념의 소유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듯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한껏 강조한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올림픽 텔레비전 보도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보도를 보면 해당 운동선수가 이룬 스포츠 분야에서의 위업은 별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그 선수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눈물 빼는 이야기, 그가 뛰어넘은 장애물, 부상이나 어려운 유년기, 고국의 정치적 혼란 등의 악조건을 극복한 성공담 등등을 한껏 늘어놓는다.

10

15

이는 압도적 다수(77퍼센트)의 미국인이 현실에 펼쳐진 사회적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명문대 대학생들에게서도 그러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자신은 노력과 수고 덕분에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한다.

20

능력주의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하고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한다는 점에서 흡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 개념이 대안일 수 있는지를 따져 볼 때다.

☞ 능력주의의 이상에 흡이 있다는 필자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マイкл サンデル(1953~)

미국의 정치 철학자. 1980년부터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이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책 제목:

필자:

읽은 날짜: 20

| | | |
|--|--|---|
| 소제목별로 내용 요약하기 |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
| |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 |
| |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 |
| |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 |
| 질문 만들고 답변하기 | 질문 | 답 |
| | 예)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 니라면, 그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
| 필자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부분 정리하기 | | 예)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점’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노력까지 의심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
| 책 내용 중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정리하기 | | |





이해하고 적용하기



소단원
형성 평가

깊게 읽기

- 1 귀족제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특성을 정리하고, 두 사회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해 보자.

| | 귀족제 사회 | 능력주의 사회 |
|------------------------------------|--|---|
| 장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이 가능함.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조건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고, 지위는 대대로 세습됨. | |
| 두 사회의 공통점 | | |
| 귀족제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 모두 _____ 이/가 존재한다. | | |

- 2 이 글에 제시된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이해해 보자.



‘능력주의’라는 용어의 등장

마이클 영이 1958년에 쓴 책인『능력주의의 등장』에서 사용함.

‘능력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

‘능력주의’에 대한 마이클 영의 관점

3 능력주의에 대한 필자의 반론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소제목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와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부분에 능력주의에 대한 필자의 반론과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1) 능력주의에 대해 필자가 제기한 두 가지 반론을 찾아 빈칸을 채우며 필자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

능력주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사회라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능력주의의 이상은 평등이 아닌 _____에 있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즉, 능력주의의 이상은 _____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면 능력주의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_____와/과 불안을 자아내고, 패자에게는 굴욕과 _____을/를 자아내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능력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능력주의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2) (1)에서 확인한 필자의 의견에 대한 다음 학생들의 생각을 참고하여, 능력주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동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로 인해 빈부 격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성공한 후 꾸준하게 기부를 하거나 자선 사업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좀 더 건강한 능력주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4 능력주의에서 바라보는 ‘재능’과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소제목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부분에 ‘재능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가정에 대해 필자가 의문을 제기한 이유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1) ‘재능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가정에 대해, 필자가 제기한 두 가지 의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의문 1

재능을 갖게 된 것은 _____

의문 2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 역시 _____

(2) 필자가 ‘능력주의는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한다’고 말한 이유를 파악해 보자.

-
-
-
-
-



소제목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부분에 제시된 능력주의 용호자들의 주장과 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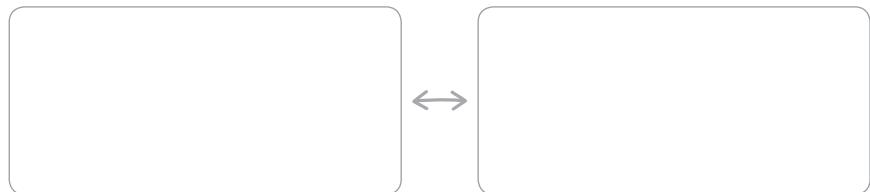
(3)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5 다음은 이 글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쟁점을 파악해 보자.

대부분의 논쟁은 기회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일자리, 교육, 공직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어떤가를 놓고 벌어진다. 우리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원칙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칙의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이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대학 입학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정책이 기회의 평등과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능력 이외의 것으로 지원자들을 판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이 있어야만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집단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1) 위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립되는 두 입장은 정리해 보자.



(2)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자.

(3) 다음 그림을 보고,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을 마련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삶에 적용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비교해 보자.

스펙(spec)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영어 능력 시험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

도매금(都賣金)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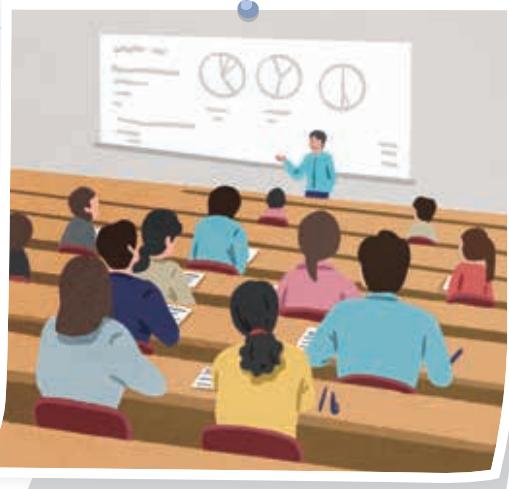
스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스펙 경쟁이 일부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해결 방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연관성이 낮은 스펙, 그리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학력, 성별, 출신지 등을 처음부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펙을 무조건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스펙’이라는 이름 아래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실성과 노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실성과 노력의 결실이 스펙이라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설득력 있게 표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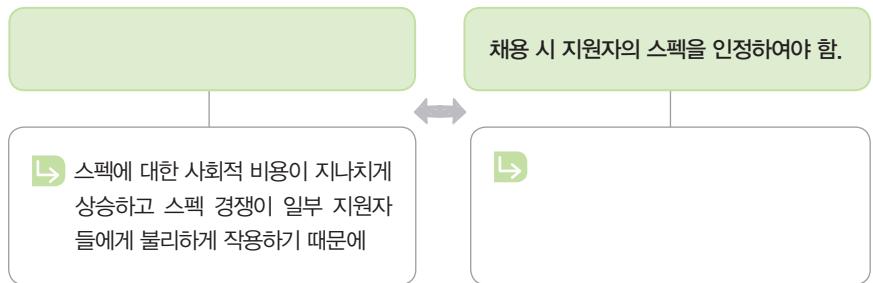
물론 이런 성취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이라거나 값비싼 사교육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지원한다 해도 학업 성취의 많은 부분은 학생 당사자의 땀방울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집이 잘산다고 대학 학점도 덩달아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요. 성실히 노력하는 책임감이 기본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좋은 학점을 받는 것, 높은 어학 점수를 취득하는 것 또한 개인이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물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 어디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학점을 받은 대학생들의 권리 말입니다. 이들이 남긴 ‘좋은 기록’들은 깡그리 무시해도 좋은 걸까요?

– 구정우, ‘공정성 아래 희생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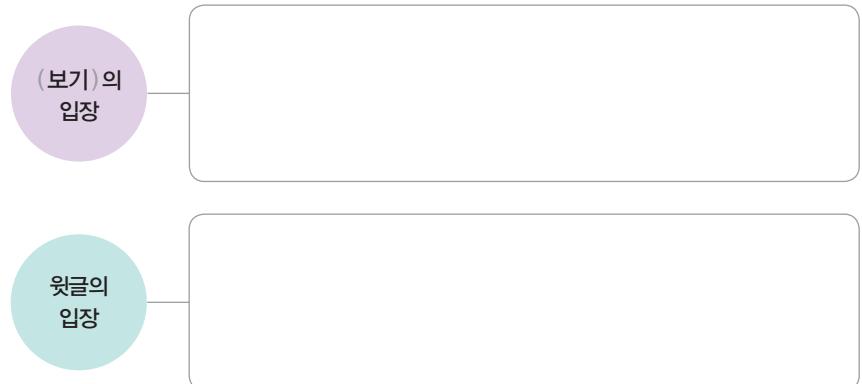
(1) '스펙'에 관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보기)는 『공정하다는 착각』의 일부이다. '학업 성취'에 대한 (보기)와 윗글의 입장을 비교하여 써 보자.

(보기)

-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보다 유리한 출발점(부유한 가족의 사랑과 지원,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 대학들은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부자와 인맥 좋은 사람들의 자녀를 유리하게 만들어 준다.
-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지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란 어렵다.



(3) 인재를 선발할 때 '스펙'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2 모둠별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선정하며 공정한 인재 선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모둠별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가상의 회사나 단체를 설정해 보자.

예) 프로그램 개발자를 뽑기 위한 게임 회사, 광고 기획자를 선발하려고 하는 광고 회사



인재를 평가하기에 더 적합한 요소가 있다면, 제시된 요소 외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2) 인재 선발 시의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전공(학과) 협동심 학점 인성 어학 점수 의사소통 능력

업무 관련 경험 출신 대학

| 평가 기준 | 선정 이유 |
|------------|---|
| 예) 의사소통 능력 | 광고 기획자는 광고주와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3) (2)에서 선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혹은 지원자들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평가 기준 | 검증 방법 또는 중점적으로 평가할 내용 |
|-------|-----------------------|
| | |
| | |
| | |
| | |



(4) 우리 모둠에서 마련한 인재 선발 기준이 해당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기에 공정하고 적합한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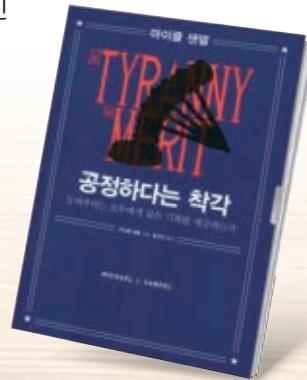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용하는가?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던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부제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 책은 현대 사회에 뿐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능력주의가 우리의 기대처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능력주의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이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고, 출생 조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사회가 아닌가? 그런 능력주의가 폭정(포악한 정치)을 한다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가 귀족제 사회 못지않은 불평등을 만들어 내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대학 입시에서부터 사회적 상승과 성공에 이르기까지 능력주의의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능력주의에 대한 통념을 깨뜨림과 동시에, 능력주의의 횡포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보장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공동선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평 읽기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나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늘 뜨거운 쟁점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르며,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공정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인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의 개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능력주의의 이상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 오찬호,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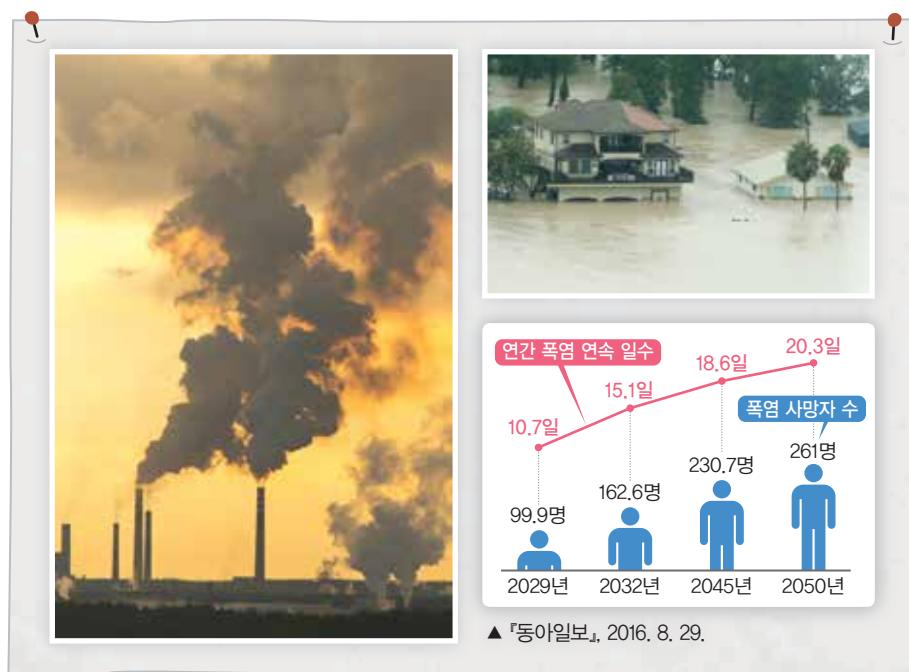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 | 학습 목표 |
- 사회적인 현안이나 쟁점이 담긴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다.
 -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다.



소단원 도입
동영상

“환경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 환경 문제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해 보자.



이어질 독서 토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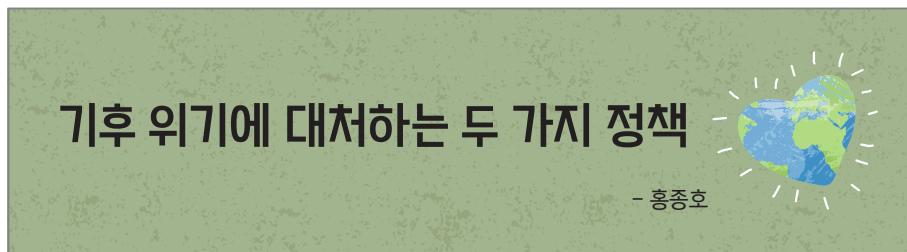
-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의 논제 생성하기
- 독서 토론을 위한 자료 찾기
-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독서 토론 진행하기
-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점 표현하기



활동 ①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의 논제 생성하기

동주네 모동원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기로 했다.

- 다음은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기후 위기의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과 관련하여 책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 그 효과 등을 정리하여 읽어 보자.



[가]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가 있는 미국 뉴욕시 월가에서 이름을 따온 보수 성향의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입니다. 2019년 1월 17일자 오피니언 지면에 흥미롭고도 논쟁적인 기사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라」.

기사 내용 중 탄소세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안은 탄소세다.
- 탄소세율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 탄소세 도입과 함께 다른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세수^{증립}을 달성해야 한다.
- 탄소세와 동시에 다른 비효율적인 탄소 관련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 국경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탄소세로 거둔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 줘야 한다.

세수(稅收)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보죠. ‘탄소세’란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경제 행위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의 조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탄소세율을 인상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무시할 만큼 낮은 수준의 세율이 아니라면, 경제 주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택을 함으로써 탄소세에 반응하게 되죠.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생산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한편,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착한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생산 위축과 조세 저항⁵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되, 다른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경제 주체가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수 중립적’ 조세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세수 중립적 탄소세를 도입하면 어떤 사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이중 배당’ 가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환경 개선 효과가 생깁니다. 탄소세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화석 연료에 포함돼 있는 미세 먼지나 질소 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죠. 다시 말해 탄소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동네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그만큼 감면

5

10

15

조세 저항(租稅抵抗)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



해 준다면, 개인의 처분 가능 소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일 할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오를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책입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와 생산 행위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 5 새로운 기술 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 정책이 모두 스마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효과가 불 확실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인허가 과정을 보면 정부의 여러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

- 10 야 한다거나,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면 산림이나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규제는 재생 에너지 설치 공사를 지연시켜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각종 비용을 키웁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국민 복지를 명분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화석 연료 보조금 정 책입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국의 석탄과 석유 사용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왔죠. 그만큼 화석 연료의 값이 싸져서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결국 기후 문제 대응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탄소세 선언문에는 탄소 국경 조정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에 부과하는 국가 간 비용 차이를 상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현재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가령 미국이 탄소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 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부과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 가격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비용이 낮은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고요. 이른바 ‘탄소 누출’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탄소 국경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공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와 생산 행위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에 부과하는 국가 간 비용 차이를 상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처분 가능 소득(處分可能所得)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전년도의 이전(移轉) 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하게 나눠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탄소 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세수 활용 방안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금액을 나눠 주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눠 주는 탄소 배당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증진함으로써 탄소세 도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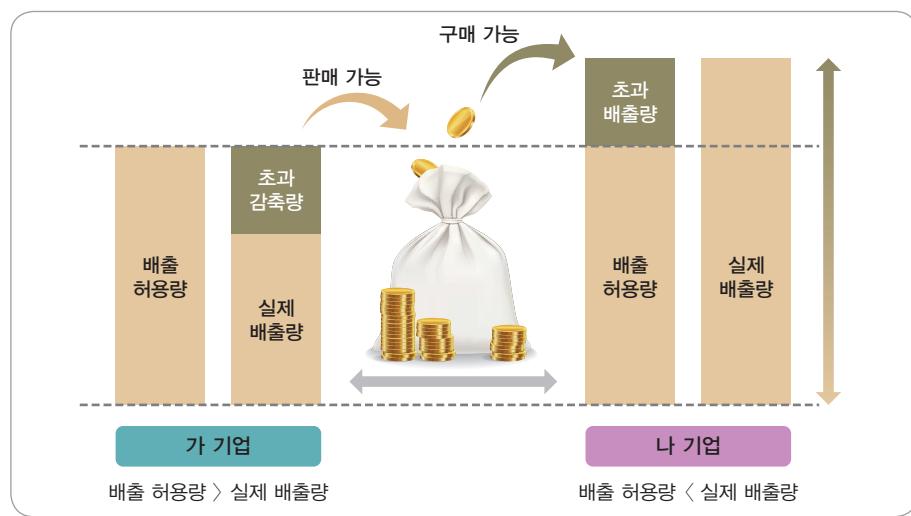
나

혁신적 환경 정책의 으뜸은 뭐니 뭐니 해도 ‘배출권 거래제’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경제학자는 별로 없을 듯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환경 오염 행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부여한 후, 이를 오염 주체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배출 허용 총량 설정 후 거래’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두 단계를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

첫째, 정부가 총배출량 상한선을 정한 후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업에 배출권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기업은 확보한 배출권을 기반으로 필요 시 배출권을 사고파는 의사 결정을 합니다. 배출권이라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기업은 자신이 가진 배출권이 필요량보다 많을 경우 시장에 내다 팔아 수입을 챙기고, 반대로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합니

15



다. 시장에서는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백미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의 인위적 창출에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서 배출권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죠. 만약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오직 그 한도 내에서만 오염 물질을 5 배출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명령과 통제에 따른 직접 환경 규제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순간, 기업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오염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배출권의 시장 가격보다 적다면, 기업은 배출권뿐 아니라 오염을 줄일 방법을 더 갖게 됩니다. 기업은 이때 발생하는 여 10 분의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죠. 반대로 오염 저감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더 비싸다면 스스로 오염을 줄이기보다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97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 의정서’를 통해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계기로 배출권 거 15 래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유럽 연합은 배출권 거래제의 전격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시범 적용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5~2007년 제1기를 거쳐 2008~2012년 제2기가 시행됐고요. 2013~2020년 제3기가 8년간 진행되었고, 현재 제4기가 시행 중입니다. 배 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10여 년 동안 유럽연합은 배출 총량 상한을 지속적으로 20 줄여 왔습니다. 또한 배출권을 기업에 공짜로 나눠 주는 무상 할당 방식에서, 경 매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유상 할당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왔죠.

이 대열에 우리나라도 동참했습니다. 2015년 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전격 시행하 25 기에 이르렀죠. 각각 3년간 시행된 제1기와 제2기를 거쳐 2021년 제3기가 시작됐으며,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 탄소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제도는 무엇인가?

홍종호(1963~) 기후 경제학자. 지속 가능한 재정,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기후 위기 부의 대전환』,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공저) 등이 있다.

1 다음은 이 글을 읽은 동주네 모둠의 독서 일지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보자.

독서 일지

| | | |
|---------------------|------------------------|---|
| 읽은 날짜 2000년 00월 00일 | 모둠원 동주, 현빈, 서현, 은성, 진영 | |
| 주요 내용 | | |
| 개념 | 가 탄소세 | 나 배출권 거래제 |
| | 정부 | 정부가 환경 오염 행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권리(을) 부여한 후, 이를 오염 주체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 | 방법 | 정부 정부 기업 |
| 방법 | 정부 | 정부 |
| | 정부 | 정부 |
| | 기업 | 기업 |
| 효과 | 정부 | 정부 |
| | 정부 | 정부 |
| | 기업 | 기업 |

독서 과정에서 동주네 모둠이 생성한 질문

- 기업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거나 되면 그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어떻게 변화할까?
-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와 생산 행위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_____
- _____





논제의 종류

- 사실 논제: 사실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논제
- 가치 논제: 현상에 관해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논제
- 정책 논제: 정책의 실행 여부를 논하는 논제

2 독서 과정에서 생성한 질문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의 논제를 정해 보자.

- (1) 동주네 모둠이 독서 과정에서 생성한 질문들 중 독서 토론에서 다룰 만하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골라 보자.
- (2)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 나눈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논제 도출의 바탕이 된 질문과 동주네 모둠이 정한 논제를 적어 보자.

현빈: 나는 책을 읽으면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 책에 나온 것처럼 탄소세가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 제도의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간접적 증거가 아닐까?

서현: 완벽한 제도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그 사회에 가장 적절한 제도를 고르고, 현실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병행할 수도 있을 테고.

동주: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권 거래제만 실시하고 있으니까 탄소세를 도입하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커지지 않을까?

은성: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선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봐.

진영: 그러면 이번에는 “
(이)라는 정책 논제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

현빈, 서현, 동주, 은성: 좋은 생각이야!



논제를 도출할 때 여러 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

논제 도출의 바탕이 된 질문

- 우리나라 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
-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 아닐까?
-



동주네 모둠이 정한 논제

활동 ② 독서 토론을 위한 자료 찾기

동주네 모둠은 “우리나라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활동 ①의 가와 나에서 찬반의 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한 후, 독서 토론에서 활용할 자료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찾아보았다.

1 가와 나에서 찬성이나 반대 측 논거가 될 만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보자.

| | 찬성 측 논거가 될 만한 내용 | 반대 측 논거가 될 만한 내용 |
|---|--|--|
| 가 | 예) 탄소세를 도입하면 대기 오염 물질이 감소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생긴다. | |
| 나 | | 예)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2 다음은 동주네 모둠에서 찾은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①~⑤의 자료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거 자료로 분류해 보자.



유류세는 자동차의 화석 연료를 생산·소비하는 경제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2018년 프랑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소시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교외에 살면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이들이나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유류세 인상이 큰 타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 박상욱, 「기후 위기로 읽는 인권」

②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국내 탄소 배출권에 대해 정부가 곧 최저 가격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배출권 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연이은 데 따른 것이다.

– 「한국방송공사(KBS) 뉴스」, 2023. 11. 29.



③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한도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0.6퍼센트포인트, 2도 이하 억제 시나리오하에서 0.4퍼센트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향신문』, 2023. 9. 25.

④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세 감면 또는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 『신소재경제』, 2022. 7. 13.

⑤ 배출권 거래제하에서는 무상 배출권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며,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아서 일부 기업은 오히려 남는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유럽은 발전 부문에서 이미 100퍼센트 유상 할당으로 배출권이 배분되고 있다.

– 『문화방송(MBC) 뉴스』, 2021. 12. 15.

찬성 측 논거 자료

반대 측 논거 자료

□

3 찬성이나 반대 측 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더 찾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자.



| 구분 | 측 논거 자료 |
|----|---------|
| 내용 | |
| 출처 | |

활동 ③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며 독서 토론 진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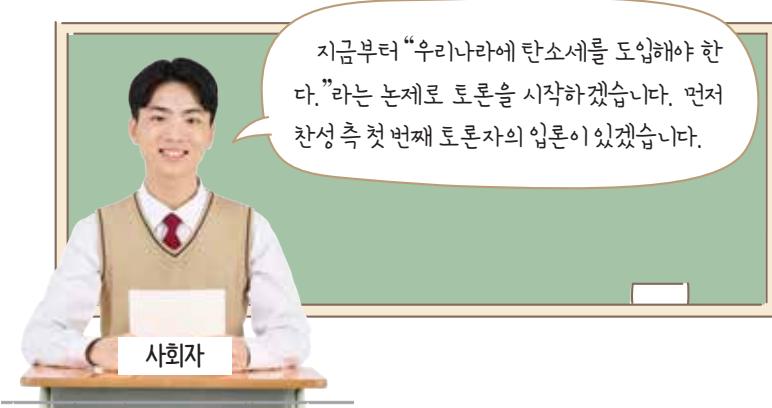
동주네 모둠은 “우리나라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독서 토론을 실시하였다. 활동 ①의 가와 나, 그리고 활동 ②에서 추가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질 부분의 독서 토론을 진행해 보자.

- 1 다음은 동주네 모둠에서 실시한 독서 토론의 일부이다. 뒤에 이어질 부분의 독서 토론을 위한 논증을 구성해 보자.



토론 동영상

토론하기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할 때는 찬성 측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찬성 측은 입론에서 모든 필수 쟁점에 대해 논증을 구성할 의무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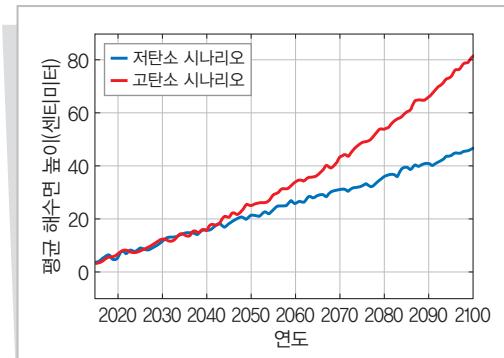
찬성 1 저희는 우리나라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탄소세란 탄소를 배

출하는 모든 경제 행위에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의 조세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탄소 배출은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를 초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해수면 높이가 2050년에는 25센티미터, 2100년에는 82센티미터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보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3

탄소세는 이러한 기후 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된 비용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기업은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한 이래 2017년까지 78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를 26퍼센트나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해 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탄소세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처럼 탄소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다른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을 감면해 주면 오히려 생산 의욕을 북돋울 수 있고, 설사 탄소세로 인해 생산력이 다소 저하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보다는 기후 위기의 극복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보다는 생존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정책 논제로 토론할 때의 필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문제 쟁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가?
- 해결 방안 쟁점: 논제에 제시된 해결 방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가?
- 이익·비용 쟁점: 논제에 제시된 해결 방안이 가져다 줄 이익이 발생하는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큰가?

문제

과다한 탄소 배출은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를 초래했고,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음.

해결 방안

이익·비용



도움

독서 토론을 할 때는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예를 들어 반대 신문을 할 때는 말투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여 줄 수도 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에게 반대 신문을 하겠습니다.

반대 2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찬성 1 예, 알고 있습니다.

반대 2 배출권 거래제의 대표적인 방식인 ‘배출 허용 총량 설정 후 거래’는 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보다는 감축될 것이므로, 찬성 측에서 말한 것만큼 해수면이 급속도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그 말씀이 맞으려면 배출권 거래제만으로 탄소가 상한선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 전제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입론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1 저희는 우리나라에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세와는 달리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 저감 노력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 상한선이라는 목표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 감축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탄소세가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주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탄소 세 부과는 배출권 거래제처럼 기업에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대신 가격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의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례만으로 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탄소세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탄소세 부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받는 타격

은 매우 큽니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탄소세로 자동차 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자 이에 타격을 입은 소시민들이 시위에 나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문제

해결 방안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대신 가격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탄소세가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준다고 확신하기 어려움.

이익·비용



사회자 이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에게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탄소세 도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는 다른 세금을 깎아 주거나 탄소세로 거둬들인 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대 1 탄소세의 보완책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찬성 1 그렇다면 물가 상승과 관련하여 탄소세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반대 1 국가 정책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탄소세가 도입될 때 반드시 그런 정책과 함께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①의 [기]와 [나] 및 활동 ②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 중 동주네 모둠의 토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적절히 활용해 보자.

논제와 관련하여 각 쟁점을 질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문제 쟁점: 찬성 측이 탄소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가?
- 해결 방안 쟁점: 탄소세는 찬성 측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실행이 가능한가?
- 이익·비용 쟁점: 탄소세로 인한 이익이 탄소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부작용보다 큰가?

(1) 모둠별로 찬성 측과 반대 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쟁점별로 뒤에 이어질 토론 내용을 구성해 보자.

• 우리 모둠의 선택:

| | 주장 | 이유/근거 |
|-------------|----|-------|
| 문제 쟁점 | | |
| 해결 방안 쟁점 | | |
| 이익·비용 쟁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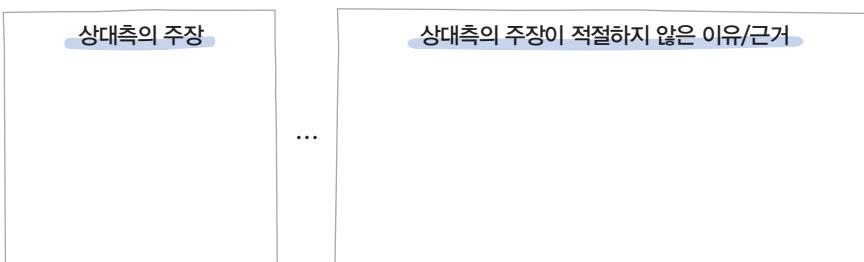
동주네 모둠이 실시한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이는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을 증명하는 질문을 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 방식이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
| 1 | 찬성 1의 입론 |
| 2 | 반대 2의 반대 신문과 찬성 1의 답변 |
| 3 | 반대 1의 입론 |
| 4 | 찬성 1의 반대 신문과 반대 1의 답변 |
| 5 | 찬성 2의 입론 |
| 6 | 반대 1의 반대 신문과 찬성 2의 답변 |
| 7 | 반대 2의 입론 |
| 8 | 찬성 2의 반대 신문과 반대 2의 답변 |
| 9 | 반대 1의 반론 |
| 10 | 찬성 1의 반론 |
| 11 | 반대 2의 반론 |
| 12 | 찬성 2의 반론 |

앞에서 1~4단계가 이루어졌으므로 5단계부터 수행해 보자. 상황에 따라서 10단계로 토론이 원료되도록 계획할 수도 있다.

(2) 상대측에서 제시할 주장을 예측해 보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논증을 구성해 보자.



2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부터 독서 토론을 진행해 보자.

(1) 독서 토론에서 수행할 역할을 분담해 보자.

| 역할 | | 참여자 | |
|-----|------|-----------|-----------|
| 사회자 | | | |
| 토론자 | 찬성 측 | 첫 번째 토론자: | 두 번째 토론자: |
| | 반대 측 | 첫 번째 토론자: | 두 번째 토론자: |

(2) 독서 토론을 진행하며 주요 내용을 기록해 보자.



| | | 찬성 측 | 반대 측 |
|-------|-------------------|-------------------|------|
| 입론 | 주장 이유/근거 | 주장 이유/근거 | |
| 반대 신문 | 반대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 |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 | |
| 반론 |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 |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론 | |

3 토론을 마친 후,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토론 과정을 평가해 보자.

| | 평가 기준 | 찬성 측 | | | 반대 측 | | |
|--------|--|------|---|---|------|---|---|
| | | ◎ | ○ | △ | ◎ | ○ | △ |
| 내용 | 입론과 반론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쳤는가? | | | | | | |
| | 반대 신문에서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는가? | | | | | | |
| | 상대측의 반대 신문에 적절하게 답변했는가? | | | | | | |
| 표현과 전달 |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했는가? | | | | | | |
| |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 | | | | | |
| 태도 |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했는가? | | | | | | |

• 평가 척도 - ◎: 잘함, ○: 보통, △: 보완 필요

활동 ④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점 표현하기

동주네 모둠은 독서 토론을 바탕으로 가다듬은 생각과 관점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동주네 모둠처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해 보자.

- 1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 자신이 선택한 제도를 홍보하는 문구를 써 보자.



문장이나 구절을 떠올릴 때 앞서 실시한 독서 토론의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은 문제 쟁점, ②는 해결 방안 쟁점, ③은 이익·비용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문장이나 구절을 쓸 수 있다. 물론 더 좋은 내용을 새롭게 떠올릴 수도 있다.

- (1) 다음 각 조건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압축적으로 담긴 문장이나 구절을 1개씩 써 보자.

① 탄소의 과다한 배출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부각하는 문장이나 구절

② 자신이 선택한 제도의 특성이나 효과를 잘 드러내는 문장이나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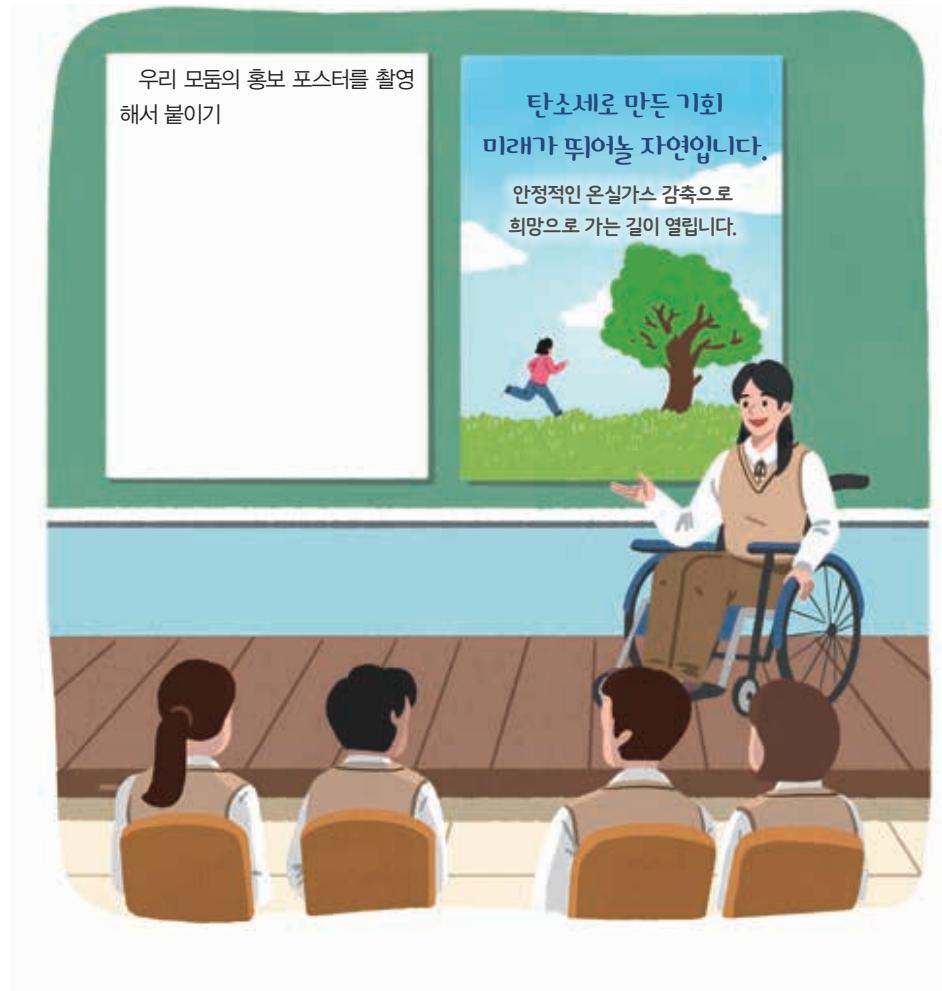
③ 이 제도를 선택한 이유를 보여 주는 문장이나 구절



다양한 공익 광고 포스터의 표제나 부제 등을 참고하되, 필요하다면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기법을 활용 할 수도 있다.

- (2) 모둠원 각자가 쓴 홍보 문구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둠의 홍보 문구를 완성해 보자.

2 1에서 완성한 문구에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자.



3 다른 모둠의 홍보 포스터와 발표를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



| | 평가 기준 | 평가 결과 |
|-----------|------------------------------|-----------------------------|
| 홍보 포스터 |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나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는가? | • 발표를 잘한 모둠: • 인상적인 포스터: |
| | 제목과 내용,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
| 발표 | 청중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표하였는가? | • 인상적인 내용이나 표현: |
| | 청중의 특성에 적합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 |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 | 학습 목표 |
-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을 담고 있는 책을 읽고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여 자신의 관점을 담은 글을 쓸 수 있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쓰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글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소단원 도입
동영상



| 글을 통해 사회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사례가 더 있는지 찾아보자.

|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어질 글쓰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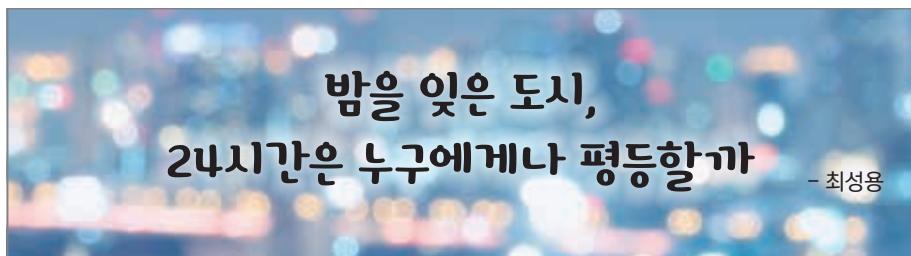
-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기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쓰기
-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는 글 쓰기



활동 ① 책을 읽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기

책을 읽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해 보자.

- 다음은 밤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편리함 뒤에는 야간 노동을 하는 이들의 수고와 야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우리 사회의 현상과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10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시, 그 뒤에 숨은 노동

늦은 밤 화려한 불빛은 도시의 특징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어른의 경우라면 늦은 밤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김밥집, 햄버거 가게, 카페, 노래방, 헬스장, 동물 병원 등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24시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밤늦은 시간 까지 문을 연 상점도 많을 뿐 아니라, 심야 상영을 하는 극장 역시 많다.

하지만 당연히도, 24시간 깨어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온갖 편의를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리고 새벽에 일해야 한다. 야간 시간에 소비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쉴 때 일터를 지키는 이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야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야간 노동은 삶의 패턴을 완전히 뒤흔든다. 야간 노동자의 삶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사회학과 해리엇 프레서 교수는 부부 중 한 명은

도시에서 24시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상점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감내(堪耐)해야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야.

주간에, 다른 한 명은 야간에 일하는 커플에게 '태그 팀 커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명칭의 유래는 이렇다. 프로 레슬링 경기 중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벌이는 경기가 있는데, 팀당 한 명씩 링 위에 올라가 경기를 하다가 선수 교체를 할 때는 링 밖에 있는 다른 선수와 '태그'를 한다. 그러면 둘은 위치를 바꾸어 한 명이 링 위로 올라오고 다른 한 명은 링 밖으로 나간다. 한 명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른 한 명이 바로 출근하는 커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들 태그 팀 커플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집에서 스치듯 만나고 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자영업자의 사정도 비슷하다. 특히 혼자서 가게를 꾸리는 '나 홀로 사장님'들은 28.8퍼센트가 주당 52~68시간, 13.2퍼센트가 68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작은 가게를 차리면서 멋진 사장님의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가족과 식사 한 끼 같이할 시간도 내기 어려운 것이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들을 위한 시장이 또 만들어졌다. 2007년 대형 마트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확대되었을 때, 퇴근 시간이 늦어 장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덩달아 대형 마트 마감 직원들의 퇴근 시간도 늦어졌다.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면 그들의 퇴근 시간은 새벽 1시 가까이 된다. 노동자들의 새벽 근무가 늘어나니 퇴근이 문제였다. 새벽에

야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생긴 우리 사회의 현상은 무엇인가?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 지방 자치 단체는 새벽에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만들었다. 이 서비스는 새벽 퇴근을 위해 택시를 타곤 했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버스 기사가 생겼다. 새벽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생겼다. 야간 노동은 또 다른 야간 노동을 낳았다. ⁵ 악순환[●]인 것이다. 야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

야간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늦은 밤에 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건강에 좋지 않다. 야간 노동자는 주간 노동자에 비해 적대감과 우울감이 높고, 위장 질환과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크며, 낮은 수면의 질로 피로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밤 노동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늦은 밤에 일하면 다른 사람들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¹⁰ 친척들과의 교류가 어렵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와 마주치기 어려운 야간 노동자들이 자녀와 멀어지기 쉬운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

악순환(惡循環)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다. 야간 노동자들은 우리가 도시의 밤을 즐길 때 늘 옆에 있어 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하지만 밤에 일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밤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돈을 벌 필요가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았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하고 저녁 시간에는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일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때 선택한 것이 주유소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늦은 밤 동안 일하니 낮보다 시급도 1.5배가 많았고, 새벽 3시까지 일하는 것이 피곤하긴 했지만 아예 밤을 새우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안성맞춤인 자리였다. 그렇게 야간 일자리 덕분에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만약 어떤 노동자가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무 시간이 자정까지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자신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거나 야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고용된 처지인 그의 삶은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기로 결정한 회사의 방침에 크게 좌우된다. 자발적으로 야간에 일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물론 밤늦게까지 혹은 야간에 일하는 것이 주간 근무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체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야간 근무를 택하는 것을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 말할 수 없다.

필자가 야간 노동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와 그곳을 평생직장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가 과거 야간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평생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잠시 거쳐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새벽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가정을 꾸렸는데도 새벽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거나 일하면서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5

10

15

20

25

도시의 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듯 도시의 밤은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결정이 맞물린 문제이다. 더불어 이는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책은 우리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야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5 2020년 한 지방 자치 단체는 환경미화원의 새벽 근무를 없애고, 근무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바꾸었다. 그 전까지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였다. 그동안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깨끗한 거리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새벽에 일한 덕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편익이다. 대신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무
- 10 엇일까?

- 2015년부터 3년간 근무 중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18명, 부상자는 1,804명에 달했다. 새벽에 일하는 까닭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 후진하는 청소 차에 치이거나 다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잣았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벽에 쓰레기봉투를 치울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뾰족한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아 부
- 15 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2019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새벽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에 따라 몇몇 지방 자치 단체들이 환경미화원의 새벽 근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근무 환경을 바꾸고 있다.

- 주간 작업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시범 운영을 했던 지방 자치 단체에서
20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95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위험 요소가 사라진 데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이제까지 누릴 수 없었던 가족, 친구와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시간이 바뀌면서 우리의 거리가 깨끗해지는 시간이 3시간 늦춰졌다. 그 대신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생활이 좋아졌다.

- 25 이 경우는 어떨까? 낮에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곳의 차선이 많이 벗겨져서 새로 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낮에 작업하면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시간이 낭비되고, 공회전 증가로 인해 오염 물질 또한 많이 배출될 것이다. 반면에 새벽 작업을 하면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칠 수 있다. 그 대신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편익(便益) 편리하고 유익함.
간선 도로(幹線道路) 원줄기가 되는 주요한 도로.
공회전(空回轉) 기계 따위가 헛되는 일.

이 들 것이다. 결국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이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 야간 노동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벽 근무가 좋다 나쁘다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같은 상황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 상황이라는 것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 자르듯 딱 잘라 해답을 내기는 쉽지 않다.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그때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밤의 도시’를 두고 상반된 정책이 나와 흥미를 끌었다. 런던의 경우는 야간 경제가 영국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가 크다고 보고, 런던의 밤 문화와 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반면에 스위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진행 중이다. 스위스는 노동자들의 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2010년 제네바는 상점 영업 시간 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상점이 너무 일찍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이유였다. 그런데 투표 결과, 찬성 43.8퍼센트, 반대 56.2퍼센트로 이 법안은 부결되었다.⁵ 시민들이 늦게까지 상점을 이용하는 편익보다는 상점 노동자가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네바 시민들의 결정이었다.

5

10

15

부결(否決)되었다 의논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다.



유럽의 도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일요일에는 영업을 안 하는 가게가 매우 많다. 자발적으로 영업을 쉬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이나 조례로 휴일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한다.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휴일에 쉴 권리,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도시의 정책은 야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아니면 야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할까?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분법적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선택지에는 ‘무엇을’도 있지만 ‘어떻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에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도시의 밤은 누군가에게는 꽉 짜인 일상을 벗어나는 해방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내몰린 시간이기도 하다. 주말과 새벽까지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야간 근무에 몰린 택배 기사가 숨을 거두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의 활기찬 밤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5 잠 못 이루는 야간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한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비용을 내가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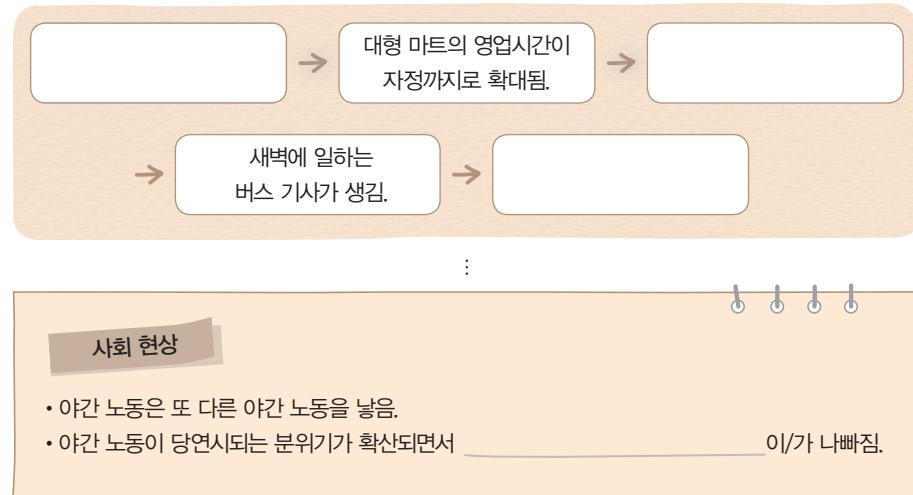
☞ 야간 노동과 관련한 선택지에 ‘무엇을’도 있지만 ‘어떻게’도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성용(1976~) 작가. 도시의 생태와 생활 등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시티 그리너리』,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등이 있다.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1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야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이해해 보자.



2 이 글에 나타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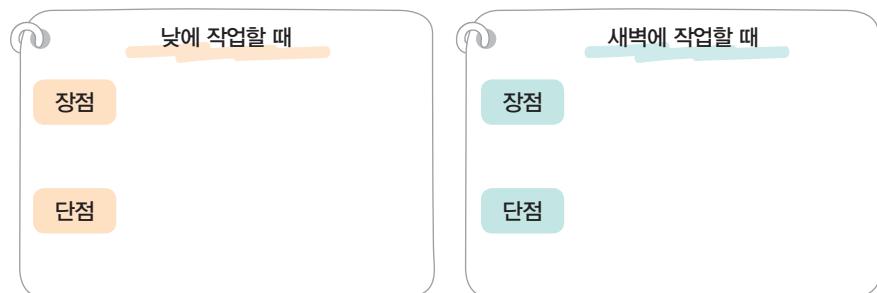
| | |
|-------|---|
| 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대감과 우울감이 높음... |
| 대인 관계 | |

3 이 글에서 제시한 야간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보자.

(1) 야간 노동 정책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고려한 가치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 | 사례 | 고려한 가치 |
|---------|---|--------|
| 우리나라 |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새벽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함. | |
| 영국 런던 | 런던의 밤 문화와 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
| 스위스 제네바 | 상점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지만 부결됨. | |

(2) 다음 사례에서 낮에 작업할 때와 새벽에 작업할 때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



4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한 야간 노동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이유와 함께 제시해 보자.

도시의 정책은 야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아니면 야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할까?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분법적 선택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선택지에는 '무엇을'도 있지만 '어떻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

- 자신의 관점: 예) 야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이유:

활동 ②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쓰기

야간 노동 문제에 관한 책을 읽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쓰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자.

1 야간 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쓰려고 한다. 야간 노동에 관한 자신의 관점과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를 적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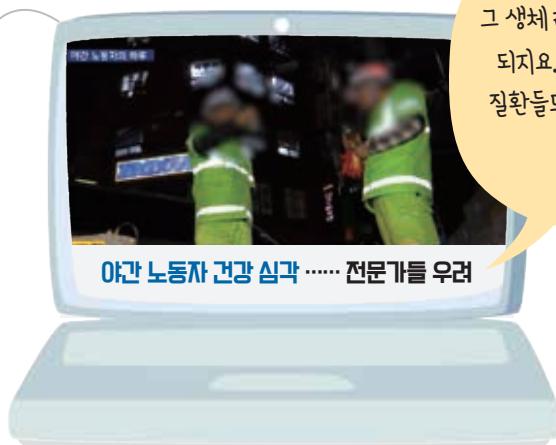
| 자신의 관점 | 글의 주제 |
|---|---|
| 예) 야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우선적 가치를 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예) 야간 노동이 야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촉구 |
| | |

2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자.

(1) 야간 노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다음 자료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자.

야간 노동이 건강에 어떤 악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군. 야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어.

| 자료 1 |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야간 노동은 그 생체 리듬을 파괴해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되지요. 그 결과 화나고 우울해져서 정신적 질환들도 생기고요.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질환도 생기게 됩니다.
- 임□□(△△병원 원장)

- 「문화방송(MBC) 뉴스」, 2020. 12. 3.

| 자료 2 |

사회 안전 및 유지를 위해
상시로 야간 노동을 하는 사
례이므로, 야간 노동이 꼭 필
요한 경우도 있음을 보여 줄
수 있겠군.

○○ 지역 산불로 피해 극심, '야간 진화 체제'로 진화 작업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지역에서 발
생한 산불로 인해 6일 오전 6시까지 인근 산림
이 불에 타고, 382개의 시설이 소실됐다고 이
날 밝혔다. …… 현재 전국 소방 본부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 269대, 689명의 인력이 ○○ 지역
을 비롯해 산불이 번지고 있는 지역에서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 『경향신문』, 2022. 3. 6.

| 자료 3 |

- 자료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근로 기준법에도 야간 노동은 '언급'만 '규제'는 없다

“일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근로 조
건으로 볼 수 없다.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간 노동을 규
제할 의무가 있다.”

국민입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송○○ 변호사는 야간 노동 규제 필요성
을 주장하는 ‘야간 노동 근절 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는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근
로 기준법 제70조 2항에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특정 대상을 야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방점이 찍
혀 있을 뿐 야간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야간
노동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변호사는 ‘야간 노동 근절 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생명
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의 심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
야 한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 『노동법률』, 2022. 2. 28.

| 자료 4 |

- 자료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자.

프랑스는 「노동법전」에 야간 노동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 노동은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경제적 활동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도 야간 노동을 시행하지 않고 9시에 폐점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 「프랑스 대규모 점포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2019. 12. 30.

(2)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더 수집하여 보자.

| 자료 | 수집한 자료의 내용 | 자료 출처 |
|----|------------|-------|
| | | |
| | | |
| | | |
| | | |

3 다음을 참고하여 수집한 자료들 중에서 적절한 자료를 선별해 보자.

-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관점에 맞는 자료인가?
-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없는 정확한 자료인가?
- 출처가 분명하며,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가?
-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인가?

4 선별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 | |
|-------|--|
| 글의 주제 |  야간 노동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 |
| 글의 제목 | 우리 사회 야간 노동 정책의 협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 | | |
|----|----|--|
| 개요 | 서론 | 야간 노동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야간 노동으로 발생한 사회 문제 제시 |
| | 본론 | |
| | 결론 | |

5 야간 노동에 관하여 자신이 정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여 고쳐 써 보자.

(1) 우리 사회의 쟁점 중 하나인 ‘야간 노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을 담은 글을 써 보자.

(2) 완성한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서로의 글을 평가해 보자. 그리고 친구들의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쓴 글을 보완해 보자.

- 야간 노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 글에 사용된 자료들은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글에 제시된 정보들은 공정성 측면에서 적합한가?
- 글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고, 내용은 신뢰할 만한가?





활동 3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는 글 쓰기

○ 야간 노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관점으로 글을 쓴 친구들끼리 모둠을 이루어 사회적 쟁점에 관한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을 하려고 한다.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야간 노동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써 보자.



정책 제안서는 사회 기관이나 민간 차원에서 정책의 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정책 제안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깔끔한 형식과 명료한 내용, 설득력 있는 어투로 작성해야 한다.

1 '야간 노동에 관한 청소년 정책 제안서'를 모둠별로 작성해 보자.

- (1) 활동 2에서 마련한 내용을 활용하여, 정책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자.



문제점

- 야간 노동 정책 부재로 인해 야간 노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함.
- 야간 노동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연관된 공동체의 문제임에도 야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등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필요한 정책

- 야간 노동을 허용하는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규정 신설
- 야간 노동자의 정기적 건강 검진 및 검진 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 의무화

기대 효과

- 야간 노동의 기준과 그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동자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2)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형식에 따라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보자.



정책 제안서

제목 **예)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야간 노동 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의 이유와 배경

정책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제안자(제안 단체)



2 정책 제안서를 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올리고, 그 결과를 다른 모둠원들과 공유해 보자.

3 정책 제안서를 통해 사회적 담론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해 보자.

예)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의 누리집에 올려 보니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 우리가 올린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확인하여 제안서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 보겠어.”

단원의 마무리



스스로 평가하기

| 소단원 | 항목 | 평가 |
|------------------------------|--|-------|
| (1)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책 읽기 |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현안이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는가? | 😊 😐 😞 |
|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 토론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정책』을 읽으면서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토론을 수행하면서 대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였는가? | 😊 😐 😞 |
| (3)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글 쓰기 | 『밤을 잊은 도시,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할까』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현상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였는가? | 😊 😐 😞 |

활동 점검하기

- 공정한 인재 선발 방식을 생각해 보는 활동에서 우리 모둠이 선정한 평가 기준은 _____이고, 그 이유는 _____ 때문이다.
- 탄소세 도입에 대한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활동에서 우리 모둠은 _____ 찬성 / 반대 _____의 입장이었고, 그 이유는 _____ 때문이다.
- 독서 토론 활동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_____이며, 이를 _____ 방법으로 보완하겠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쓰는 활동에서 나는 _____ 점을 배웠고, 이를 _____ 상황에서 활용하고 싶다.



사회 현안 캠페인 제작하기

창의적
독후 활동

캠페인이란 사회 변화나 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고 주목하게 할 수 있으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캠페인에는 서명 운동, 행사나 집회 참석 등의 형태뿐 아니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참여 잇기[챌린지(challenge)]’ 형태도 있다. 사회 현안을 다른 책을 읽고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잇기 영상을 제작해 보자.

- 모둠별로 읽은 책 중, 다음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나 쟁점을 다른 책을 선정해 보자.

인권

평화

역사

청소년 문제

.....

선정한 책 예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선정한 이유 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실상을 포착한 다양한 사진과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나의 평화’를 넘어 ‘우리의 평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 순서

- 사회적 문제나 쟁점을 다른 책 선정하기
-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와 필자의 견해 정리하기
- 사회 문제에 대한 모둠의 관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잇기 영상 제작하기
- 모둠별로 참여 잇기 영상을 상영하고 평가하기

도움

모둠에서 읽은 책 중 적절한 책이 없다면 이 단원에서 읽은 책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와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

필자의 견해



③ 사회 문제에 대한 모둠의 관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자.

| 우리 모둠의 관점 | 우리 모둠의 해결 방안 |
|-----------|--------------|
| | |



참여 잇기는 특정한 메시지나 의도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메시지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의 일종이다. 영상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림으로써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한다.

특히 사회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참여 잇기는 여러 사람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담론 형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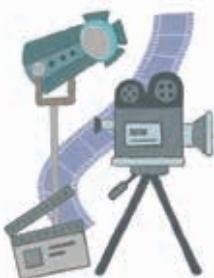
④ ③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0초 분량의 참여 잇기 영상을 제작해 보자.

- (1) 참여 잇기 영상의 주제를 선정하고, 영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영상의 주제

영상의 주요 내용

- (2) 참여 잇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모둠원들의 역할을 정해 보자.



| 역할 | 모둠원 |
|-------------------|-----|
| 대본 작성 | |
| 등장인물 연기 | |
| 카메라 촬영 | |
| 편집(제목, 자막, 음악 포함) | |

(3) 사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참여 잇기 영상의 줄거리판을 작성해 보자.

| 장면 번호 | 장면 내용 | 구성 계획 |
|-------|--|--|
| 예 | 세계의 분쟁을 다룬 신문 기사, 뉴스 영상 등을 보여 주고, 대글 창에 '더 이상은 싫어요!'라는 대글을 다는 모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막 문구: 더 이상은 싫어요! 영상 효과: 우리 사회의 분쟁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5 모둠에서 제작한 참여 잇기 영상을 상영하고,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인상적인 영상을 골라 보자.

| | 평가 기준 | 평가 결과 |
|--------|--|--|
| 내용 | 참여 잇기의 취지가 드러나는 행동을 요구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상적인 영상: |
|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 구성과 표현 | 영상의 요소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이유: |
| | 개성적인 문구와 인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였는가? | |

